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 2011년도 예산

14조 8,644억원 확정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도 소관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 8,644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9,092억원 대비 448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 2010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1,906억원(1.3%) 증가하였다.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삭감된 규모는 전년(1,491억원)에 비해 다소 높은 2,287억원이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최근 쌀값 상승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예산이 1,087억원 삭감되었으며, 4대강 관련 사업비(저수지 득높이기 250억원,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200억원)와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금(500억원)이 삭감되었다. 또한, 한미 FTA 비준과 관련되는 피해보전 예산은 비준 지연에 따른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소득보전 직불 150억원, 폐업지원 100억원) 조정되었다.

반면, 증액된 사업(27개 사업, 1,839억원)의 내용을 보면,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 다목적농촌용수

개발(399억원)과 수리시설 개보수(200억원) 사업비, 서산 간척지 등 대단위 농업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150억원)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어항건설(32억원), 검역계류장시설현대화(30억원), 내수면자원조성(10억원), 수산식품산업첨단지조성(50억원), 친환경양식기반 구축(8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다. 또한,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지원(174억원)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70억원)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산지유통활성화 자금(500억원)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비(77억원)를 증액 하였다.

그밖에, 전통발효식품산업 및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12억원)와 최근 병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10억원) 등도 증액하였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확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라 일본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 및 국내 닭·오리 사육농가 차단방역 강화 당부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2일부터 일본산 가금, 가금육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1.30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산란계

농장 HPAI 의사환축 발생으로 취했던 잠정 검역중단 조치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HPAI(H5 아형)로 최종 확진 발표함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이후 HPAI 발생이 없고, 2008.8.15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HPAI 청정국 지위회복을 통보 받은 바 있으며, HPAI 발생국으로부터는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금년(2010.10월까지) 일본으로부터 가금육 334톤이 수입되었으며, 전체 가금육 수입물량(85,525톤)의 0.4%를 차지하였다.

※최근 일본에서는 2차례의(2004.1.12, 2007.1.13) HPAI가 발생

아울러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HP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검출은 발생이 아님

농식품부는 12월08일 중앙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의 “전북 익산의 만경강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이 아닌 검출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더라도 발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금육에 대한 국가 간에 교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AI 청정국 지위는 유지된다.

생명산업을 농림수산식품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농림수산식품부 「생명산업 2020 + 발전전략」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6일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생명산업 2020+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정의)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과 이를 관리·활용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고부가가치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이번 발전전략에는 ▲세계 수준의 생명자원 확보 및 DB 구축, ▲BT, NT 등 융복합 기술 R&D확대, ▲생명산업 기업 육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농림수산식품분야 중 발전가능성이 높은 종자, 기능성·의약품소재, 동물약품, 미생물, 바이오에너지 및 애완·관상 동물산업 등 6대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2월에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발표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생명산업을 제시하였으며, 6월에는 「생명산업 D.N.A#展」 개최를 통해 생명산업의 중요성과 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생명산업 발전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생명자원 확보) 다양한 농림수산 생명자원 확보 및 유전적 특성을 평가하여 신품종육종, 기능성물질 등 생명공학 등의 생명산업 소재로 제공할 계획이다
- 농업분야 생명자원을 현재 21만점(세계 6위)에서 2020년도에 34만점(세계 5위)으로 확대하고, 13%에 머무르고 있는 특성평가비율을 2020년도에

80%까지 확대하며 아울러, 기관별, 분야별로 관리되는 생명자원에 대해 종합정보시스템(DB)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3년도까지 60억원을 투자, 자원정보검색부터 분양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2) (R&D강화) 농림수산물 R&D를 개편하여 천연의 약 소재, 품종육종 및 바이오에너지 등 생명산업분야에 확대 지원한다.

-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생명산업기술개발' 사업으로 개편, 확대하고 향후 10년간(2011~2020년) 1조 1,964억원을 투자하고, '농생명 원천기술연구'를 위해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하여 2020년까지 10년간 8,150억원을 투자하여 유전체해석 및 유용유전자 발굴, 바이오장기생산기술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21세기 프론티어사업결과 나온 연구성과 중 생명산업분야를 산업화하기 위해 「생명자원소재의 산업화 기술개발」을 2012년~2021까지 1조 3,860억원 투자계획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3) (생명산업 육성) 생명산업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활성화 및 지역의 농림수산 특화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을 육성한다.

- 생명산업 기업체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모태펀드를 최대한 활용하고(2010년도 597억원 예산을 2020년도까지 약 1조원 조성계획), 민간육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에 필요한 첨단시

설 및 장비 등이 집적된 민간육종단지를 조성(2011~2015, 270억원 투자)하고, 또한 약용작물을 이용한 천연색소 산업화지원센터(2011~2012, 100억원)를 설립하여 기능성식음료·의약·화장품 등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며, 지역의 농림수산자원을 원료로 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 구축되어 있는 바이오산업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원료생산 및 산업화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등에서 지역별로 바이오산업진흥센터 등(25개소)을 설립 지원

4) 생명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6대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①종자산업, ②기능성·의약소재개발, ③동물의약품산업, ④마생물산업, ⑤바이오에너지개발, ⑥애완·관상동식물산업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 7조 4,63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 4,045억원을 투자하고, 2012년부터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계사 '지열난방' 연료비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고

지열난방시 연료비는 80% 줄고 생산성 5% 향상

농촌진흥청은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해 계사를 난방하는 기술을 개발해 연료비는 줄이고 생산성은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립축산과학원이 전북 진안의 5만수 규모 육계농가에 설치해 2년간의 실증시험을 통해 얻어졌다. 육계는 축산농가에서 연료 소비량이 가장 많은 축종 중의 하나로, 5만수 육계를 사육할 경우 연간 4만~5만ℓ의 연료를 소모하고 연료비는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번에 실증시험을 거친 지열난방장치는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해 지구표면의 무한한 열을 난방에 이용하는 기술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특히 지하수에 저장된 열을 이용하며 12~25℃의 열을 히트펌프에서 변환해 여름철에는 10~15℃로 낮추어 냉방에, 겨울철에는 45~50℃로 가온해 난방에 이용한다. 실증시험시설은 수직개방형(SCW, Standing Column Well) 지열난방시스템으로 관정 2공을 깊이 450m로 뚫어 지하수를 끌어 올린 다음 히트펌프에서 열교환 후 사용한 지하수는 다시 지하로 보내 재순환해 지하수의 고갈 없이 난방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설을 이용해 외부 기온이 영하 10.8℃인 한 겨울에도 계사 내부온도를 주령에 따라 33.6~22.7℃까지 맞출 수 있었다.

실험결과, 관행난방계사에 비해 연 평균 연료비는 80%가 절감됐고 계사 내부 유해가스 농도는 30~40% 감소했으며 출하체중은 5%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수(2,691㎡)의 무창 육계사 기준으로 연간 관행난방 시 27,382ℓ의 경유가 소요됐으나 지열난방은 5,428ℓ의 연료를 소모해 80%의 연료를 절감했다. 특히 관행난방은 저온기에 계사를 밀폐시키고 환기량을 최소화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암모니아가스 농도가 높았

다. 그러나 계사 지열난방 시스템은 연료비 걱정이 없어 신선한 공기를 계사 안으로 불어 넣어줌으로써 계사 안의 환경을 좋게 했으며 이로 인해 암모니아가스,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농도는 30~40% 감소했다.

이렇게 유해가스 농도가 낮아지면서 출하체중도 좋아져 관행난방 5주령시 1.9kg, 6주령시 2.38kg인데 비해 지열난방 계사는 5주령 2.0kg, 6주령 2.5kg으로 5%의 증체 개선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열난방시스템은 설치비가 비싸고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 농가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하기가 곤란하며,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에 보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증시험에 참여했던 진안 한성농장 한상립 대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육계농가들이 막대한 연료비를 충당하느라 고충을 겪고 있는데, 지열난방장치를 이용할 경우 연료비도 절감하고 생산성도 개선돼 육계농가에 하루빨리 보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원장은 “FTA로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한 축산농가들이 지열난방을 통해 연료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하반기 축산물HACCP운용 우수업체 시상식 개최



● 정부 및 기관소식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12월 6일 기준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축산물HACCP운용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금번 우수업체 시상대상은 배합 사료, 가축사육단계(소, 돼지, 닭), 식육가공업이었으나 구제역 발생 상황을 감안, 식육가공업 분야만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축산물HACCP운용 우수업체는 축산물HACCP적용 작업장들 중 그 운용·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로서 전년도 정기심사 결과를 토대로 학계, 소비자단체, 관련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현장평가를 통하여 엄선하였다. 그 결과 배합사료에서는 농협사료 경북지사, 가축사육단계에서는 봉이농장(소), 성지축산(돼지), 무지개농장(닭), 식육가공업에서는 (주)동원 F&B, (주)동진H&F, 동양종합식품(주) 등 7개 업체 및 농장이 최종 선발되었다.

축산물HACCP기준원의 석희진 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축산물HACCP운용수준 우수업체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산물HACCP 운용수준 평가를 내년부터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이들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세계 5대 식의약 강국을 향한 식약청 오송 원년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내년부터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시범 특구'가 운영되고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의약도서관'이 구축되는 등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섭취(Eat Smart)'를 위한 국민운동이 전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12. 22(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하였다. 이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탈빈곤 자립지원 대책' 토론회에서는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법, 빈곤추락 방지를 위한 의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식약청은 내년도를 오송원년으로 설정하고 미래비전 2020에 의해 설정된 세계 5대 식의약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①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선진화
- ② 원료에서 소비까지 더 촘촘한 안전관리
- ③ 경쟁력 있는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 ④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식의약 규제개혁
- ⑤ 안전공감 확산을 위한 소통 활성화
- ⑥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식약청은 6대 핵심과제가 상시적 위험 사회진입에 따른 위해관리 및 신속대치의 필요성과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발전속도에 상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아울러 국민의 현명한 식의약 소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